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한영 번역에 나타난 지시표현의 차이



2012 년 8 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김 수 경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한영 번역에 나타난 지시표현의 차이

지도교수 김 은 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 년 8 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김 수 경

김수경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8월 24일

주 심 문학박사 윤 희 수 (인)

위 원 언어학박사 한 지 원 (인)

위 원 언어학박사 김 은 일 (인)



목 차

영 문 초 록	iii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5
2.1. 주제성에 대한 영어와 한국어의 특성	5
2.1.1. 영어	5
2.1.2. 한국어	6
2.2. 유생성 부호화	9
2.3. 동양과 서양의 역사·사회·문화적 특성	10
III. 지시표현의 변경 유형, 빈도 및 설명	13
3.1. 지시표현의 변경 유형 및 빈도	13
3.2. 한국어의 형태별 영어 번역 유형	15
3.2.1. 보통명사	15
3.2.1.1. 보통명사 > 대명사	16
3.2.1.2. 보통명사 > 고유명사	19
3.2.1.3. 보통명사 > 다른 보통명사	22
3.2.2. 고유명사	25
3.2.2.1. 고유명사 > 대명사	25
3.2.2.2. 고유명사 > 다른 고유명사	26

3.2.2.3. 고유명사 > 보통명사	28
3.2.3. 대명사	29
3.2.3.1. 대명사 > 다른 대명사	30
3.2.3.2. 대명사 > 고유명사	33
3.2.3.3. 대명사 > 보통명사	35
 IV. 결론	 38
 참고문헌	 43
분석자료	44



**A Study on the Referential Expressions
in Korean-English Translation**

Soo Kyung Kim

*Graduate School of English
Pukyu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how referential expressions are differently coded in Korean-English translations in terms of topicality, animacy and sociocultural context. In this paper, referential expressions refer to common nouns, proper nouns and pronouns. In the analysis, 257 differently translated referential expressions are found from two parallel corpora, which are *Please Look After Mom*(2010) and its original Korean text(2008), and *Our Twisted Hero*(1990) and its original Korean text(1987).

In this study, the number of common nouns, proper nouns and pronouns in the original Korean texts and English translation texts is as follows: 208/63, 18/48, 31/146. This means that Korean has a preference for using common nouns over the others, but English employs pronouns most. That is because pronouns are employed to refer to continuous participants in English, while common nouns are used repeatedly regardless of topicality in

Korean.

The reason why Korean and English employ different referential expressions although they have the same contexts can be accounted for in the following way. First, the higher topicality is, the more pronouns are used in English. However, common nouns are repeatedly used irrespective of topicality in Korean. Second, Korean and English differently code referential expressions with regard to animacy. Third, referential expressions are affected by sociocultural contexts. Koreans emphasiz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nd regard individual as a member of the society, whereas Westerners consider individual as an unique identity.



한영 번역에 나타난 지시표현의 차이

I. 서론

동일한 담화 환경 속에서 같은 대상을 지칭할 때 언어에 따라 다양한 언어형태로 나타나거나 다른 대상을 지칭할 때 같은 언어형태를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 흥미로운 점이다. 많은 연구에서 동일한 문맥에서 동일한 등장인물이 출현하더라도 언어에 따라 다른 형태의 지시표현(referential expression)이 사용됨을 밝혔다(Givón 1983; Brown 1983; 이주은 2003; 정연창·김은일 2011 등). 이렇게 같은 문맥 속에서 다른 언어형태를 취하는 예문을 아래에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한국어의 보통명사가 영어의 고유명사로 바뀌어 번역된 경우와 한국어의 고유명사가 영어의 대명사로 바뀐 경우 두 가지를 다음의 예문에서 살펴보자.

- (1) a. 글을 쓰는 사람이니 문안 작성은 네가 해라, 오빠가
너를 지명했다. [...] ¹⁾ 38이라는 숫자를 36이라고 고

쳐 적으려는데 오빠가 신상명세서이니 38년생으로 적어야 한다고 했다. (「엄마를 부탁해」: 10-11)

- b. Hyong-chol designates you to write up the flyer, since you write for a living. [...] When you're about to write "38" as "36", Hyong-chol says you have to write 1938, because that's the official date. (*Please Look After Mom*: 3-4)

- (2) a. 이미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내 눈에는 엄석대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엄석대는 거칠게 도시락 뚜껑을 닫고는 험한 얼굴로 내게 다가왔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291)

- b. I was so angry I didn't even see him. He slammed the lid roughly on his lunch box and walked over toward me, his face set in anger. (*Our Twisted Hero*: 23)

예문 (1)에서 '오빠'는 'Hyong-chol'이라고 번역되고 있다. 한국어 원문에서 보통명사가 영어 번역문에서는 고유명사로 번역된 경우이다. 예문 (2)에서 '엄석대'는 'him'과 'he'로 번역되고 있다. 즉, 한국어 원문에서 고유명사가 영어 번역문에서 대명사로 번역된 경우이다. 위와 같이 한국어 원문과 영어 번역본은 동일한

1) 본 논문의 예문에서 밑줄, 꺾쇠괄호 등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자가 추가한 것임.

담화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형태의 지시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영어와 한국어의 지시표현에 대한 선행 연구는 많다. 특히 최근에 정연창과 김은일(2011)은 영한 번역 텍스트를 활용하여 지시표현의 변경을 언어유형론 및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렇다면 한영 번역 텍스트에서도 이와 동일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시할 수 있다. 만약 한영 번역 텍스트에서도 정연창과 김은일(2011)의 연구와 동일한 번역 유형이 발견된다면 다르게 번역되는 지시표현이 번역이라는 특수 환경에서 일어나는 현상인지, 영어와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에 기반한 현상인지에 대한 더 명확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한 텍스트에서 지시표현이 어떤 다른 형태로 변경되는 패턴을 보이는지 분석하고, 그 이유를 주제성에 대한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적 특성, 유생성 부호화 그리고 한국과 영어권의 역사·사회문화적 특성의 관점에서 조명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지시표현은 정연창과 김은일(2011)의 연구에서와 같이 보통명사, 고유명사(이름) 그리고 대명사로 한정한다²⁾.

두 언어에서 지시표현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와 그 이유를 밝혀내는 것은 영어교육적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

2) 한영 번역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지시표현의 범주에 영대용(zero anaphor)도 포함시킬 수 있으나, 영대용 혹은 생략 현상에 대해서는 이전에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생략 현상에 대한 연구는곽성희(2002), 김은일·정연창(2006), 김현정(2002) 등이 있다.

진다. 연구의 결과를 한국인 학습자들이 영어 작문을 할 때 부딪히는 모국어 간섭 현상에 의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활용한다면 쓰기 활동을 할 때 지시표현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신경숙의 장편소설 「엄마를 부탁해」(2008)와 김지영에 의한 그 번역본 *Please Look After Mom*(2010), 이문열의 단편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1987)과 Kevin O'Rourke에 의한 그 번역본 *Our Twisted Hero*(1990)을 사용하여 같은 문맥에서 다르게 표현된 지시표현의 유형 및 빈도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두 가지 소설 병렬언어자료를 이용하여 257개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얻은 결론이기 때문에 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후속연구로서 본 연구에 더하여 다양한 유형의 언어자료를 바탕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일반화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해와 논의를 돕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써 주제성에 대한 영어와 한국어의 특성, 두 언어의 유생성 부호화 차이, 한국(혹은 동양)과 서양의 역사적·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제 3장에서는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대표적인 유형들을 소개한다. 여기에서 각 예문들에 대한 번역동기 또한 설명한다. 제 4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그것이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며 결론을 맺는다.

Ⅱ. 이론적 배경

제 2장에서는 본 연구의 논의에 필요한 선행연구들에 대해 알아본다. 아래 2.1에서 주제성에 대한 영어와 한국어의 특성에 대하여 각각 알아보고, 2.2에서 영어와 한국어의 유생성 부호화 차이에 대하여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2.3에서는 동양과 서양의 역사·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하여 알아본다.

2.1. 주제성에 대한 영어와 한국어의 특성

2.1.1. 영어

Givón(1983)에 따르면 지시표현의 언어형태를 선택할 때, 정보처리가 단절적(discontinuous)일수록 혹은 어려울수록 좀 더 큰 부호화 장치(coding device)를 사용한다. 쉽게 말해 가장 주제적인 대상은 가장 작은 언어형태인 영대용(zero anaphora)을 사용하여 지칭하고 주제성(topicality)이 작아질수록 대명사, 고유명사 순으로 사용하며, 가장 주제적이지 않고 단절적인 대상을 지칭할 때에는 가장 큰 언어형태인 완전 명사구(full NP)를 사용한다. 다음의 예문에서 주제성에 따라 어떤 언어형태가 사

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3) Briar Rose was heartbroken. She didn't want to marry a prince. She had fallen in love with the handsome stranger she had met in the woods (*Sleeping Beauty*³⁾: 27)

예문 (3)에서 등장인물 'Briar Rose'이 처음에는 고유명사로 나타났으나 다음 문장에서부터 얼마간 계속 대명사 'she'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주인공이 고유명사로 소개되고부터는 주제성이 높아져 대명사가 사용된다.

영어는 위와 같이 주제성에 따라 언어형태를 달리한다는 원칙에 철저히 부합하는 언어이다. 반면에 한국어는 주제성과 관계없이 동일 어휘를 반복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에 대해서 2.1.2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2.1.2. 한국어

국립국어원(2005)에 따르면 한국어는 동일 어휘를 반복하는 특징을 가지며 대명사의 사용이 활발하지 않다. 영어라면 대명사나 유의어, 비유적인 표현 등이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한국어에서는 아래와 같이 동일어가 자주 반복된다.

(4) 지리산에 풀어놓을 러시아산 야생 반달가슴곰이 곧 국

3) Walt Disney. 1987. *Sleeping Beauty*. Ladybird Books Ltd.

내에 들어온다. 1997년 중국을 통해 백두산 반달가슴 곰 한 쌍 등이 반입된 적은 있으나 번식이 아닌 방사를 위해 곰을 수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30일 “반달가슴곰의 복원을 위해 러시아 연해주에서 반달가슴곰 여섯 마리를 이날 오전 포획했으며, 러시아 측에서 검역 증명서를 발급받는 대로 이르면 5일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국내로 반입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2004. 10. 1)

위 글은 ‘반달가슴곰’에 대한 신문 기사이다. 세 문장으로 구성된 위의 글에서 ‘반달가슴곰’은 4번이나 사용되었다. 심지어 세 번째 문장에서는 ‘반달가슴곰’이 두 번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통명사나 고유명사 등의 동일 어휘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한국어의 특성은 다양한 텍스트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은 박완서의 소설 ‘그 여자네 집’에서 동일 어휘가 반복된 예이다.

- (5) 만득이는 우리 동네의 유일한 읍내 주학생이라 품앗이 일에서는 저절로 제외되곤 했건만 곶단이네가 일손이 모자라는 집도 아닌데 제일 먼저 달려들곤 했다. 곶단이의 작은오빠하고 만득이는 친구 사이였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만득이가 곶단이네 집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고 싶어 하는 게 친구네 집이라서가 아니라 그 여

자, 곶단이네 집이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부엌에서 더운 점심을 짓느라 연기가 곧게 올라가는 따뜻한 가을날, 곶단이네 지붕에 제일 먼저 뛰어올라 깃발처럼 으스대는 만득일 보고 동네 노인들은 제 색시가 고우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더니만, 하고 혀를 찼지만 그건 곧 만득이가 곶단이 신랑이 되리라는 걸 온 동네가 다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 여자네 집」 4: 639)

위 이야기에서 ‘만득이’와 ‘곶단이’는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 영어를 비롯한 다른 유형의 언어에서는 이처럼 한 이야기 안에서 여러 번 언급되는 사람이나 사물은 주로 처음 나올 때가 아니면 대명사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대명사를 사용하기 보다는 위 글처럼 명사를 되풀이해서 쓰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특히 가리키는 대상이 윗사람일 경우, 즉 ‘어머니’, ‘할머니’ 등을 대명사 ‘그녀’로 표현한다거나 ‘아버지’, ‘할아버지’를 대명사 ‘그’로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위의 두 종류의 텍스트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어 텍스트에서는 영어와 달리 주제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동일 어휘가 가까운 문맥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4) 박완서, 2005. 「한국단편소설 65」, 리베르.

2.2. 유생성 부호화

유생성(animacy)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통칭하는 말이다. 김은일(2002)에 의하면, 영어는 유생성에 상관없이 하나의 문법장치로 부호화되는 반면, 국어는 생물과 무생물이 다른 문법 장치로 부호화된다. 즉, 한국어는 영어에 비해 유생성의 차이가 더 민감하게 언어장치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영어는 유생성에 관계없이 ‘old’라는 형용사를 생물(old man)과 무생물(old shoes)에 모두 사용하지만 한국어는 각각 늙은 남자, 낡은 신발과 같이 유생성에 따라 다르게 표현한다. 이러한 과대부호화(over-code) 현이 때문에 ‘늙은 남자(old man)’라는 표현에는 익숙한 한국 학습자들이 ‘낡은 신발’을 영어로 표현할 때 ‘낡은’에 해당하는 적당한 단어를 찾기 위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생성이 두 언어에서 다르게 부호화되는 현상은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전치사 등 문법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나타난다(김은일 2000).

유생성 부호화에 따른 영어와 한국어의 또 다른 특성은 등장인물의 유생성에 따라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에 위치하는 선호도를 달리한다는 것이다(정연창·김은일 2009; Ikegami, 1991). 영어는 사건에 관계된 인간행위자 요소를 강조하는 것을 선호하므로 아래의 예 (6a)와 (7a)와 같이 인간행위자가 주어나 목적어 자리를 차지한다. 반면에 한국어는 (6b)에서처럼 인간행위

자가 표현되지 않거나 (7b)에서처럼 목적어 명사구의 일부(즉, 수식어)로 나타난다(정연창 · 김은일 2011).

(6) a. Where am I?

b. 여기가 어디지?

(7) a. I don't understand you.

b. 나는 네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

위의 예를 요약하면, 영어는 인간행위자가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나타나는 반면, 한국어는 인간행위자가 아닌 무생물이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나타난다.

2.3. 동양과 서양의 역사적 · 사회문화적 특성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상과 세계관을 나타내며 그 사회의 문화를 전달하는 매개체이므로 외국어 교육을 할 때에는 언어기능뿐만 아니라 목표언어에 대한 문화적 이해도 강조되어야 한다. 이은숙(2008)에 따르면 언어는 독특성과 자율성을 가지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 가치관, 풍속, 미학적 감각과 취향의 문화적인 측면을 반영하거나 문화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부분이 매우 많다. 예를 들어,

Valdes(1986: 3)은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은 지역적 특성에 의해 눈(snow)과 관련된 어휘가 매우 많이 발견되나, 열대 기후 지역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비(rain)에 관련된 어휘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환경·문화적인 배경이 언어에 반영되는데, 최현욱(1997)은 영어의 ‘aunt’에 대응하는 단일어가 한국어에는 없지만 친척관계에 따라 ‘이모’, ‘고모’, ‘숙모’, ‘백모’ 등의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는 표현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는 소수 민족 집단이 없는 한국인이 민족의식과 가족중심적인 유교문화전통을 가짐으로써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지시하는 용어가 발달해 있음을 보여준다.

Nisbett(2003: 5-6)은 고대 그리스와 중국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과 사고 방식의 차이로 서양과 동양의 사고 차이를 설명한다. 서양은 개인의 자율성과 개인 정체성에 대한 강한 인식을 가지는 반면, 동양은 개인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중시했다. 즉, 서양인들에게 개인은 특정한 상황에 구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라면, 동양인들에게 개인은 특정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의 일부로서 인식되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사회문화적 영향으로 한국어를 포함한 동양의 언어에는 관계나 역할과 관련된 보통명사가 발달해 있다(정연창·김은일 2011).

인류심리학자 Edward Hall은 동양과 서양의 이러한 차이를 ‘고맥락(high context)’ 사회와 ‘저맥락(low context)’ 사회의 구분을 통해 설명하였다. 고맥락 사회인 동양에서는 인간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유동적인 존재로 보고 주변 맥락의 영향을 크게 받는 반면, 저맥락 사회인 서양에서는 개인을 맥락에 속박되지 않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행위자로 간주한다. 이러한 배경들이 언어에 반영되기 때문에 영어와 한국어의 언어도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론적 배경으로써 주제성에 따라 영어와 한국어가 취하는 언어형태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고, 유생성 부호화에 따른 두 언어의 차이,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역사·사회문화적인 특성과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 제 3장에서는 제 1장에서 언급한 두 텍스트를 분석하여 통계적인 결과를 얻고,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와 설명을 제시한다.



Ⅲ. 지시표현의 변경 유형, 빈도 및 설명

이번 장에서는 연구 데이터에서 얻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논의한다. 3.1에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알아보고, 3.2에서는 한국어의 형태별 영어 번역 유형에 대해 대표적인 예문을 살펴보고, 형태별로 번역동기에 대한 설명을 한다.

3.1. 지시표현의 변경 유형 및 빈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자료에서 한국어 지시표현이 영어의 다른 지시표현으로 변경되어 번역된 경우는 총 257개이다. 이러한 지시표현의 변경 유형 및 빈도를 정리해서 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한영 번역에서 발견한 지시표현의 변경 유형 및 빈도

한국어 원문		영어 번역문		
언어형태	토큰수	언어형태	토큰수	빈도
보통명사	209	대명사	121	47.1%
		고유명사	30	11.7%
		(다른) 보통명사	58	22.6%
고유명사	18	대명사	14	5.4%
		(다른) 고유명사	3	1.2%
		보통명사	1	0.4%
대명사	30	(다른) 대명사	11	4.3%
		고유명사	15	5.8%
		보통명사	4	1.6%
합계	257		257	100%

토큰수가 가장 많이 발견된 유형부터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원문의 보통명사가 영어 번역문에서 대명사로 번역된 경우가 121개(47.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통명사가 다른 보통명사로 번역된 경우는 58개(22.6%), 그리고 보통명사가 고유명사 즉, 이름으로 번역된 경우가 30개(11.7%)였다. 한국어의 대명사가 영어의 고유명사로 번역된 경우는 15개(5.8%), 반대로 한국어의 고유명사가 영어의 대명사로 번역된 경우는 14개(5.4%)였다. 대명사가 다른 대명사 형태로 번역된 경우가 11개(4.3%), 대명사가 보통명사로 번역된 경우가 4개

(1.6%), 고유명사가 다른 고유명사로 번역된 경우는 3개(1.2%), 마지막으로 한국어 고유명사가 영어 보통명사로 번역된 경우가 1개(0.4%)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다음에서는 이들 토큰수와 각 유형에 해당하는 대표 예문들을 살펴보고 제 2장에서 알아본 주제성에 따른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적 특성, 유생성 부호화의 차이 그리고 한국과 영어권 국가의 역사적·사회문화적 차이에 기반하여 다른 언어형태로 나타나는 지시표현들에 대해 설명해보겠다.

3.2. 한국어의 형태별 영어 번역 유형

3.2.1에서는 한국어의 보통명사가 영어의 대명사, 고유명사, 다른 보통명사로 바뀐 경우를, 3.2.2에서는 한국어의 고유명사가 영어의 대명사, 다른 고유명사, 보통명사로 바뀐 경우를, 마지막으로 3.2.3에서는 한국어의 대명사가 다른 대명사, 고유명사, 보통명사로 바뀐 경우를 차례대로 살펴본다.

3.2.1. 보통명사

한국어 보통명사가 영어의 다른 지시표현 유형으로 번역된 경우는 209개로서 전체의 81.3%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대명사

로 번역된 유형은 121개(57.9%), 고유명사로 번역된 유형은 30개(14.4%), 그리고 다른 보통명사로 번역된 유형은 58개(27.7%) 관찰되었다. 이들 세 가지 유형을 영어의 대명사, 고유명사, 다른 보통명사의 순으로 살펴보겠다.

3.2.1.1. 보통명사 > 대명사

분석결과 중 전체의 47.1%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한국어 보통명사가 영어 대명사로 번역된 대표적 유형은 아래 세 가지 예문과 같다. 예문 (8)은 가족관계, 예문 (9)은 직업 및 사회적 역할, 그리고 예문 (10)은 동물을 나타내는 한국어 보통명사가 포함되어 있다. 먼저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보통명사가 대명사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 (8) a. [...] 남동생이 인터넷에 엄마를 잃어버리게 된 이유와 잃어버린 장소와 엄마의 사진을 올리고 [...] 엄마가 갈만한 곳이라도 찾아다니고 싶었으나 이 도시에서 엄마 혼자 갈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었다. (「엄마를 부탁해」: 10)
- b. [...] posted something about your mother's disappearance, [...] he uploaded her picture [...] You want to go look for her in places where you think she might be, but you know how she

is: she can't go anywhere by herself in this city.

(*Please Look After Mom*: 3-4)

예문 (8)에서 한국어 원문 소설에서는 보통명사 ‘엄마’가 네 번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영어 번역문에서는 처음에 한 번 ‘your mother’이 언급되고 난 이후에는 대명사 ‘she’ 혹은 ‘her’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제성에 관계없이 동일어휘를 반복하는 한국어의 특성과 주제성이 커질수록 더 작은 언어형태를 선호하는 영어의 특성에 기반하여,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보통명사인 ‘엄마’를 대명사로 번역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역할 혹은 직업을 나타내는 보통명사가 대명사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 (9) a. [...] 잠깐 업석대를 잊고 있었던 담임 선생님이 급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며 뒤쫓아 나갔으나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341)
- b. He called Sokdae's name and followed him out quickly, [...] (*Our Twisted Hero*: 104)

예문 (9)에서는 직업 혹은 사회적 역할을 나타내는 보통명사 ‘담임 선생님’이 대명사 ‘he’로 번역되었다. 특히, 이 문장에서 ‘담임 선생님’과 ‘석대’ 둘 다 he와 him이라는 대명사로 번역되었는데, 이는 한국어에서는 아주 드문 현상이다. 앞 문장에서

언급되었던 ‘담임 선생님’을 대명사 ‘그’가 아닌 보통명사로 지칭한 것은 대명사 사용빈도가 적은 한국어에서 주체와 객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와 주제성과 관계없이 보통명사를 반복 사용하는 경향이 드러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동물을 지시하는 보통명사가 대명사로 번역된 경우를 보여준다.

- (10) a. 눈으로는 개를 찾으며 엄마 곁에 갔는데 엄마는
기척이 없었다. (「엄마를 부탁해」: 30)
- b. Looking around for him, you approached Mom,
but she didn't move. (*Please Look After Mom*:
20)

예문 (10)은 한국어 ‘개’가 영어 번역본에서는 ‘him’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두 언어의 유생성 부호화 차이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국어는 보통명사의 사용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동물에 성(性)을 부여하지 않지만, 영어는 사람과 동물에 차이 없이 ‘he’ 혹은 ‘she’ 등의 대명사를 사용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의 보통명사가 영어의 대명사로 번역된 경우는 가장 토큰수가 많이 나타난 유형이다. 이는 주제성에 상관없이 같은 보통명사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한국어의 특징과 주제성이 높을수록 대명사를 사용하는 경향이 강한 영어의 특징과 유생성에 따라 다르게 부호화하는 두 언어의 특

장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3.2.1.2. 보통명사 > 고유명사

한국어의 보통명사가 영어의 고유명사로 번역된 경우는 30개 (11.67%)로 아홉 가지 유형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빈도를 차지했다. 30개 중 28개(93.3%)는 한국어로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보통명사가 고유명사로 번역되었고, 나머지 2개(6.7%)는 인물의 행위가 고유명사로 번역되었다. 이는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보통명사가 발달한 한국어와 독립된 한 개체로서 개인을 바라보는 영어권의 문화 차이 때문이다.

- (11) a. 오빠 집에 모여 있던 너의 가족들은 [...] 글을 쓰는 사람이니 문안 작성은 네가 해라, 오빠가 너를 지명했다. [...] 38이라는 숫자를 36이라고 고쳐 적으려는데 오빠가 신상명세서이니 38년생으로 적어야 한다고 했다. (「엄마를 부탁해」: 10-11)
- b. The family is gathered at your eldest brother Hyong-chol's house, bouncing ideas off each other. [...] Hyong-chol designates you to write up the flyer, since you write for a living. [...] When you're about to write "38" as "36", Hyong-chol says you have to write 1938,

because that's the official date. (*Please Look After Mom*: 3-4)

예문 (11)은 소설이 시작되는 첫 부분으로써 ‘오빠’가 처음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시하는 표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 원문에서는 다른 부연 설명없이 ‘오빠’로 등장하였지만, 영어 번역문에서는 ‘your eldest brother Hyongchol’으로 표현됨으로써 그에 대해 이름을 포함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관계 용어가 발달한 한국어에서는 특별한 부연 설명이 없어도 독자들이 등장인물을 이해하는 데에 문제가 없지만, 영어는 가족관계 용어가 크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처음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그 이후에는 여러 문장에서 걸쳐 ‘오빠’라는 한국어 표현이 ‘Hyong-chol’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사회나 집단 속에서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하고, 동일어휘의 반복이 자연스럽게 용인되므로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오빠’를 반복하고 있지만, 영어권 국가에서는 어떤 곳에 소속된 한 구성원으로서가 아닌 개별적인 개체로서 개인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brother’보다 ‘Hyong-chol’이라는 이름으로 쓰였다. 다음 예문에서는 인물의 행위가 고유명사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12) a. 나는 먼저 그날 내가 겪고 본 엄석대의 짓거리를

얘기한 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아버지에게 물으려 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289)

- b. I wanted to describe what I had had to put up with from Sokdae that day and get advice about what I should do in the future. (*Our Twisted Hero*: 19)

반면, 예문 (12)에서는 보통명사 ‘엄석대의 짓거리’가 고유명사인 ‘Sokdae’로 번역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한국어와 영어의 유생성의 차이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영어는 인간 행위자에 초점을 두고 그것이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나타나는 반면, 한국어는 무생물 혹은 사람이 행한 행위가 주어나 목적어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다(정연창·김은일 2009; Ikegami 199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의 보통명사가 영어의 고유명사로 번역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이다. 첫째, 예문 (11)에서처럼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보통명사가 고유명사로 번역되는 경우는 사회적 역할과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의 관점과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개인을 바라보는 서양의 관점 차이에서 기인한다. 둘째, 예문 (12)에서처럼 인간의 행위(‘엄석대의 짓거리’)가 행위자(‘Sokdae’)로 번역된 경우는 인간행위자를 강조하는 영어와 달리, 인간이 행한 행위 자체를 주어나 목적어의 자리에 두

는 한국어의 특징에서 비롯된다.

3.2.1.3. 보통명사 > 다른 보통명사

한국어의 보통명사가 영어의 다른 보통명사로 번역되는 토큰 수는 58개(22.6%)로 아홉 개의 유형 중 두 번째로 높은 빈도수를 보인 경우이다. 다른 보통명사로 번역될 때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국어와 영어의 문화적 차이를 명백하게 알 수 있다. 다음 예문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 (13) a. 너는 엄마 집에 갈 적이면 큰 도로가 있는 길을
두고 팽나무가 있는 도랑 쪽으로 길을 잡곤 했다.
(「엄마를 부탁해」: 28)
- b. When you went to your parents' house, you took
the small path toward the nettle-lined creek
instead of the big road. (*Please Look After
Mom*: 19)

예문 (13)에서는 ‘엄마 집’을 ‘your parents’ house’라고 번역하였다. 두 언어에서 같은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우리말은 집의 실제 소유자에 관계없이 친숙한 표현인 ‘엄마 집’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영어는 부모님이 모두 살고계신 논리적 의미를 중요시 하여 ‘your parents’ house’라고 번역하였

다.

(14) a. “나는 니 이모가 죽었을 때 울 수조차 없었단다.”

(「엄마를 부탁해」: 32)

b. “When my sister died I couldn’t even cry.”

(*Please Look After Mom*: 22)

예문 (14)에서 한국어로 ‘니 이모’를 영어에서는 ‘my sister’이라고 번역하였다. (14a)는 청자인 ‘너’의 입장에서 ‘니 이모’라 하였고, (14b)는 화자의 입장에서 ‘my sister’를 사용하고 있다.

(15) a. 네가 아는 한 엄마와 외삼촌은 그리 다정한 사이
는 아니었다. (「엄마를 부탁해」: 35)

b. As far as you knew, Mom and her brother
were not that close. (*Please Look After Mom*:
24)

한편, 예문 (15)에서 글쓴이의 입장에서 ‘외삼촌’이라는 가족관계 보통명사를 사용했지만 번역본에서는 ‘엄마’와의 관계를 강조하여 ‘her brother’이라는 다른 보통명사로 표현되었다.

예문 (14)와 (15)를 통해 한국어와 영어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문화적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가족관계 용어가 많이 발달한 한국어(숙모, 이모, 고모, 백부, 삼촌, 외삼촌, 할머니, 외할아버

지 등)에 비해 영어는 가족관계를 나타낼 때 비교적 간단한 단어들(aunt, uncle, grandmother, grandfather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르게 번역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무생물이 생물주어로 바뀐 경우를 살펴보자.

- (16) a. "급장하고 아이들 모두가 자연 관찰 나왔다구 하면
집에서도 암말 앓고 줄 거야."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328)
- b. "If you say you're on a nature study trip with the monitor and the entire class, your folks will give them without any fuss." (*Our Twisted Hero*: 82)

예문 (16)에서는 ‘집’이 ‘your folks’로 번역되었는데, 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변인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예문 (12)에서 ‘엄석대의 짓거리’가 ‘Sokdae’로 번역된 것과 같이 영어에서는 인간행위자가 주어 자리에 등장하지만, 한국어는 그에 해당하는 무생물이 주어 자리에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어의 ‘집’이 물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 부모님이나 식구들을 의미하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다. 우리말은 ‘집에서 ~을 주다’라는 표현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give’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your folks’로 번역하였다.

한국어 보통명사가 영어의 다른 보통명사로 번역된 경우는

위의 예문(13)부터 (16)까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떤 사건이나 사물 혹은 인물을 보는 두 언어의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3.2.2. 고유명사

한국어 이름이 영어의 다른 지시표현으로 바뀐 경우는 18개(7.0%)이고 이 중 이름이 대명사로 번역된 경우가 14개(77.8%)이고, 다른 이름으로 번역된 경우가 3개(16.7%), 그리고 보통명사로 번역된 경우는 1개(5.5%)였다. 대명사, 다른 고유명사, 보통명사 순서대로 예시와 번역동기에 대해 알아보자.

3.2.2.1. 고유명사 > 대명사

고유명사가 대명사로 번역된 경우는 14개(5.4%)인데, 영어는 한국어에 비해 대명사가 발달해 있는 언어이므로(Lee, 2010) 보통명사나 이름을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고 주제성이 높을수록 대명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파악된다. 다음에서 고유명사가 대명사로 바뀐 예시를 살펴보자.

- (17) a. [Ø]_i 마치 내 마음 속을 읽었거나 한 듯 석대는
내 아버지의 직업과 우리 집안의 살림살이도 물어

주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287)

- b. It was almost as if Sokdae could read right into my heart. He asked me about my father's job and our family circumstances. (*Our Twisted Hero*: 15)

예문 (17)에서 '석대'가 'he'로 번역되었다. 한국어 텍스트에서는 이름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 흔하지만, 영어에서는 주제성이 높을수록 대명사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앞 문장에서 언급된 'Sokdae'를 대명사인 'he'로 바꾸어 표현했다.

즉, 고유명사가 대명사로 바뀌어 번역된 경우는 한국어의 동일어휘 반복적 특성과 영어의 주제성이 커질수록 대명사를 사용하는 특성 때문이다.

3.2.2.2. 고유명사 > 다른 고유명사

고유명사가 다른 고유명사로 바뀐 경우는 3개(1.2%)를 찾을 수 있었다. 아래 예와 같이 'J시'는 'Chongup'으로, 'P시'는 'Pohang'으로, 그리고 '페루의 수도 리마'는 'Lima'로 바뀌어 번역되어 있다. 먼저 앞의 두 경우를 살펴보자.

- (18) a. 너를 비롯한 도시의 식구들이 J시의 엄마 집으로 [...] (「엄마를 부탁해」: 11)

- b. You and your siblings always went to your parents' house in Chongup [...] (*Please Look After Mom*: 4)

(19) a. 엄마 집은 네가 그날 이른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갔던 P시에서는 먼 거리였다. (「엄마를 부탁해」: 28)

- b. Your parents' house was far from Pohang, where you arrived on an early-morning flight. (*Please Look After Mom*: 18)

위의 예문 (18)과 (19)의 경우는 한국어 원문에서는 특정한 지역 이름 대신 J와 P라는 이니셜을 사용했지만, 영어 번역본에서는 대한민국의 실제 지명을 사용한 예이다. 번역본에서 원문 소설에는 없던 정보를 구체화하여 이야기에 생동감을 더하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에 반해 한국어 원문에 있던 추가 정보를 번역본에서 삭제한 경우를 다음에서 살펴보자.

(20) a. 페루의 수도 리마, 우주의 배꼽이라 불리던 쿠스코, 첫 새벽에 마추픽추 행 기차를 타러 갔던 산 페드로 역. (「엄마를 부탁해」: 44)

- b. Lima; Cuzco, dubbed the Belly Button of the Universe; San pedro Station, where you took

the train to Machu Picchu at dawn. (*Please
Look After Mom*: 31)

추가적으로 지명을 구체화한 예문 (18)와 (19)에 반해, 예문 (20)은 원래 있던 추가 정보를 삭제하였다. 소설 원문에서는 지명 ‘리마’ 앞에 ‘페루의 수도’라는 설명을 덧붙였지만, 영어 번역본에서는 도시 이름 ‘Lima’만 제시되어 있다.. 한국어 원문에서는 리마라는 도시가 낯선 한국 독자들을 위해 작가가 추가 설명을 했다면, 영어권 국가에서는 굳이 페루의 수도라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익숙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Lima’라는 이름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예문 (18), (19), (20)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유명사가 다른 고유명사로 바뀌어 번역된 경우는 한국어와 영어의 고유한 언어적 특성이라기보다는 각 문화권에서의 독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3.2.2.3. 고유명사 > 보통명사

고유명사가 보통명사로 번역된 경우는 분석자료에서 하나 찾을 수 있었다.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그 유형에 대해 소개하겠다.

(21) a. “이제 1번부터 차례로 자신이 알고 있는 석대의

잘못이나 석대에게 당한 괴로운 일들을 있는 대로 모두 얘기해주기 바란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336)

- b. “Now, I want you all in turn, beginning with number one, to tell us about all Sokdae’s misdeeds you are aware of, or anything you’ve suffered at Sokdae’s hands.” (*Our Twisted Hero*: 96)

예문 (21)에서는 ‘석대’가 ‘Sokdae’s hands’로 번역되고 있다. 번역본에서는 석대가 저지른 나쁜 행위들에 초점을 두어 원문과 차이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는 앞서 예문 (12)에서 영어는 인간 행위자에, 한국어는 행위 자체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배치시킨다고 했던 설명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즉, 이 경우는 한국어 원문에서는 ‘석대’라는 인간 행위자를, 영어 번역본에서는 ‘Sokdae’s hands’라는 행위를 드러내고 있다. 이 경우는 기존에 밝혀진 연구결과(Ikegami 1991; 정연창·김은일 2009)와 반대이므로 유사한 자료들을 더 많이 수집하여 따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2.3. 대명사

한국어 원문에서 나타나는 대명사가 다른 언어형태로 번역된

경우는 30개였고, 그 중 다른 대명사로 번역된 경우 11개 (36.7%), 고유명사로 번역된 경우 15개(50.0%), 그리고 보통명사로 번역된 경우가 4개(13.3%) 있었다. 이제 다른 대명사, 고유명사, 보통명사의 순서대로 살펴보자.

3.2.3.1. 대명사 > 다른 대명사

한국어의 대명사가 다른 대명사로 번역된 경우는 11개 있었다. 세 가지 대표적인 유형을 발견하였는데, 첫째, 장소를 지시하는 대명사 ‘그쪽’이 ‘they’로 번역된 경우, 둘째, ‘개, 재’가 ‘he’로 번역된 경우, 셋째, 이인칭 대명사 ‘네’가 삼인칭 대명사 ‘he’로 번역된 경우이다. 아래에서 이들을 예문과 함께 순서대로 살펴보자.

- (22) a. 다같이 별로 변소 청소를 하게 되어도 그쪽은 대강 쓸기만 하면 합격 판정을 내려 집으로 보냈지만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 314)
- b. For example, if we were directed to clean the lavatory, they were judged to have completed the assignment and sent home after a perfunctory sweeping, [...] (*Our Twisted Hero*: 60)

예문 (22)는 ‘그쪽’이라는 대명사가 ‘they’라는 다른 대명사로 번역된 경우를 보여준다. ‘그쪽’은 일차적으로 장소를 지칭하는 대명사이고, 여기서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⁵⁾)이다. 이를 영어에서 ‘they’라는 삼인칭 대명사로 번역하였다. 한국어에서는 사람을 지칭할 때 ‘그쪽’, ‘저쪽’과 같은 장소를 지칭하는 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대명사의 수와 성별을 엄격하게 지켜 사용하므로 ‘they’ 등의 인칭대명사를 사용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 유형인 ‘개’가 ‘he’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23) a. 개는 개고, 너는 너야.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318)

b. He's he, you're you. (*Our Twisted Hero*: 67)

예문 (23)에서는 ‘그 아이’의 줄인 말인 ‘개’를 ‘he’로 번역한 경우이다. 한국어는 수나 성별에 관계없이 아랫사람을 지칭할 때 ‘개’, ‘재’ 등의 대명사를 사용하지만, 영어는 ‘they’, ‘he’, ‘she’처럼 수와 성별에 민감한 인칭대명사를 사용하므로 다른 형태의 지시표현이 사용되었다. 예문 (22)과 예문 (23)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에서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대명사를 영어에서 그대로 직역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4) a. 대신 좀 비굴하기는 하지만 [...] 석대가 더 늦게
오기를 바라게 되었다. [...] 네가 돌아오면 눈물이
라도 흘리며 괴로워해주마. 그렇게라도 네 앙심을
풀 수 있다면 - 그게 내가 생각해낸 책략이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319)

b. I thought of a better strategy, [...] and began to
hope Sokdae would be even later. [...] Shed a
few tears, show myself in pain when he comes.
Maybe that would alleviate his rancor - this
was the strategy I came up with. (*Our Twisted
Hero*: 69)

예문 (24)는 ‘네’와 ‘네 앙심’이 각각 ‘he’와 ‘his rancor’로 번역되었다. 이 부분은 주인공의 독백장면인데 그 내용을 따옴표 안에 넣지 않고 표현했다는 특이점을 가진다. 한국어 원문에서는 따로 따옴표 안에 대사를 넣지 않아도 ‘나’가 주인공이고, ‘네’가 석대라는 사실을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영어에서는 선행문맥과 연계성에 따라 대명사가 사용되므로 시점이 바뀌어 ‘he’와 ‘his rancor’로 번역되었다. 즉, 이 경우는 영어는 철저히 선행문맥에 기반하여, 주제성에 따라 대명사를 사용하는 반면, 한국어는 그런 규칙을 파괴하고 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위의 예문 (22), (23)와 (2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명사가 다른 대명사로 번역된 경우에는 두 언어가 가지는 대명사의 쓰임이 다른 경우이다. 한국어는 대명사가 크게 발달하지 않아서 방향을 가리키는 대명사도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될 수 있고, 수나 성별에 민감하지 않으며, 주제성에 관계없이 대명사를 쓰기도 하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3.2. 대명사 > 고유명사

대명사가 고유명사로 바뀐 경우는 총 15개였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유형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첫째, 일반적으로 대명사가 고유명사로 일대일 대응되어 번역되는 경우가 14개이다. 둘째, 한국어에서 부연 설명없이 단순히 대명사로 제시된 인물이 영어로는 이름이 추가된 경우 한 가지이다. 먼저 첫 번째 경우를 살펴보자.

(25) a. 내게 대한 박해와 불리는 항상 그에게서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왔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 293)

b. Persecution and discrimination invariably came
from some distance from where Sokdae stood.
(*Our Twisted Hero*: 25)

예문 (25)에서 한국어 원문에서는 석대라는 이름 대신 ‘그’라는 대명사를 썼으나 번역본에서는 대명사가 아닌 이름 ‘Sokdae’를 사용하였다. 예문 (25)은 새로 시작하는 문단의 첫 문장이기 때문에 문맥 내에서 주제성을 중요시하는 영어의 특성상 대명사 대신 고유명사를 사용하였다. 그 반면 한국어는 주제성에 제약을 받지 않고 언어형태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새로운 단락의 첫 문장에도 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 (26)는 독특하게도 한국어 원문에서는 이름이 제시되지 않고 ‘그’라고만 지칭되던 인물에 번역본에서는 특정한 이름을 부여한 경우이다.

- (26) a. 네가 가끔 그에게 그때 이야기를 하면 [...] (「엄마를 부탁해」: 24)
- b. [...] when you brought that up sometimes, your boyfriend, Yu-bin, would reply, [...] (*Please Look After Mom*: 15)

예문 (26)는 원문 소설에서는 이전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인물을 지칭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라는 명시없이 ‘그’라는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 독자들은 ‘그’를 ‘너’의 남자친구 즈음으로 짐작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번역본에서는 ‘your boyfriend’와 함께 ‘Yubin’이라는 특정한 이름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영어에서 대명사는 선행 문맥에서 제시했던 대상을 대신하는 역할로서 쓰이는 것을 철저한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특정한 이름을 부과하여 독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대명사가 고유명사로 번역된 유형은 첫째, 예문 (25)처럼 새로운 단락의 첫 문장에 등장하는 인물인 경우와, 둘째, 예문 (26)처럼 각 문화권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장치로서 이름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다.

3.2.3.3. 대명사 > 보통명사

대명사가 보통명사로 번역된 경우는 4개로, 예문 (27)은 예문 (25)에서 대명사 ‘그’가 고유명사인 ‘Sokdae’로 바뀌었을 때와 비슷하게 ‘그’가 ‘the teacher’로 번역된 경우이다.

- (27) a. 나는 그동안 그에게 품었던 야속함이나 원망이 눈
녹듯 스러짐을 느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
웅』 : 307)
- b. I felt the disappointment and resentment I had
entertained toward the teacher melt away like
snow. (*Our Twisted Hero*: 47)

예문 (27) 역시 예문 (25)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단락의 첫 문장

으로써 ‘그’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하고자 사회적 역할을 나타내는 보통명사 ‘the teacher’을 썼다. 다음은 한국어는 단순히 대명사로 언급한 내용을 영어는 구체적인 명사구로 명확히 표현해준 경우이다.

(28) a. 내가 석대의 나쁜 짓을 캐 모으려 한 것은 그것으로 먼저 담임 선생과 그를 떼어놓기 위함이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295)

b. I began to dig into Sokdae’s misdeeds so that, first of all, I might use the information to drive a wedge between him and the teacher. (*Our Twisted Hero*: 29)

(29) a. 하지만 그쪽도 곧 쉽지는 않았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296)

b. However, uncovering Sokdae’s misdeeds didn’t prove easy either. (*Our Twisted Hero*: 30)

예문 (28)와 (29)에서는 각각 ‘그것’과 ‘그쪽’이라는 대명사로 쓰였던 지시표현이 번역본에서는 ‘the information’과 ‘uncovering Sokdae’s misdeeds’와 같이 보통명사 혹은 보통명사를 포함하는 완전 명사구로 표현되었다. 이는 지칭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작가가 한국어의 두루뭇술한 대명사를 영어의 명사

구로 구체화한 것이다.

예문 (27)부터 (29)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의 대명사는 선행문맥에 지칭하는 대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되지만, 영어는 선행문맥의 구체적인 대상을 대신하기 때문에 선행사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대명사를 사용한다. 이로써 한국어는 영어에 비해 대명사가 덜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결론

지금까지 두 가지의 한영병렬자료 「엄마를 부탁해」와 *Please Look After Mom*,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Our Twisted Hero*에서 257개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한국어 소설을 영어로 번역할 때 동일한 문맥 상에서 지시표현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에 대해 그 유형과 빈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어 원문에서 보통명사, 고유명사, 대명사가 사용된 빈도수는 각각 208, 18, 31개였다. 하지만 영어 번역문에서는 위와 같은 순서대로 각각 63, 48, 146개였다. 즉, 한국어 원문에서는 보통명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지만, 영어 번역문에서는 대명사의 사용이 가장 많았다. 이로써 두 언어가 선호하는 지시표현에 뚜렷한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영어는 대상이 주제적일수록 대명사를 사용하지만, 한국어는 동일어휘 특히, 가족관계나 사회적 역할과 같은 보통명사의 반복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각 유형에 대해 한국어의 보통명사, 고유명사, 대명사 순으로 요약 및 정리해보겠다.

한국어 보통명사가 영어 대명사로 번역된 경우가 총 257개 중에 121개(47.1%)로 가장 많았고, 다른 보통명사로 번역된 경우가 58개(22.6%), 그리고 고유명사로 번역된 경우가 30개(11.7%)였다. 즉, ‘엄마’와 같은 보통명사가 ‘she’와 같은 대명사로 번역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지시표현을 사용할 때 주제성

과 관련해서 두 언어가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한국어는 가족관계나 직업 등에 관련된 보통명사가 주제성에 관계없이 반복해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지만, 영어는 주제성이 커질수록 대명사 사용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한국어로는 ‘엄마의 집’, ‘니 이모’가 영어로는 각각 ‘your parents’ house’, ‘my sister’ 등으로 번역되는데 이는 보통명사가 다른 보통명사로 번역되는 경우로써, 문화의 차이에 기반한 가족에 대한 관점차이에서 비롯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한국어 원문 소설에서는 ‘오빠’와 같은 가족관계 보통명사가 반복해서 사용되는데 이는 한 사회 속에서 혹은 가족 관계 속에서의 개인이 가진 역할을 더 중시하는 한국 문화권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영어는 다양한 가족관계 보통명사가 발달해있지 않고, 한 개인을 독립된 하나의 개체로서 인정하는 문화의 영향 때문에 ‘older brother’이라는 표현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Hyong-chol’과 같이 고유명사를 대신해서 번역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어 고유명사가 영어 대명사로 번역된 경우는 14개(5.4%), 다른 고유명사로 번역된 경우 3개(1.2%), 그리고 보통명사로 번역된 경우 1개(0.4%)였다. 첫째, 한국어 고유명사의 77.8%가 대명사로 번역되었는데, 이 유형에서도 주제성에 관계없이 같은 지시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한국어의 특성과 주제성이 커질수록 대명사 사용을 선호하는 영어의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둘째, 다른 고유명사로 번역된 경우는 ‘J시’를 ‘Chongup’으로 번역하거나 ‘페루의 수도 리마’를 ‘Lima’로 번역

한 경우가 대표적인데, 전자는 모호성을 피하고 대상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이며 후자는 영어권 문화에 익숙한 명칭에 대한 설명을 굳이 반복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 경우는 모두 각 문화권 속에서 해당 언어 사용자들의 이해를 더 쉽게 돕기 위한 장치임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석대’가 ‘Sokdae’s hands’로 번역된 경우하나 뿐이므로 보편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유생성 부호화의 차이에서 오는 변경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대명사가 영어 고유명사로 번역된 경우가 15개(5.8%), 다른 대명사로 번역된 경우가 11개(4.3%), 그리고 보통명사로 번역된 경우가 4개(1.6%)였다. 우선 대명사가 고유명사로 번역된 경우에는 문단의 첫 문장이거나 한국어 원문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지시대상을 지칭할 때(‘그’를 ‘your boyfriend, Yubin’으로 번역)가 대표적이다. 이는 앞에 나온 대상을 지칭하기 위한 영어의 대명사 용법을 철저히 따라 모호한 여지가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시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둘째, 다른 대명사로 번역된 경우의 대표적인 예는 ‘그쪽’이 ‘they’로, ‘걍’은 ‘he’로 번역된 것이다. 이는 대명사가 발달하지 않은 한국어와 수나 성별에도 영향을 받는 영어의 대명사의 차이 때문이다. 끝으로 대명사가 보통명사로 번역된 경우는 한국어 원문에서는 ‘그’, ‘그것’, ‘그쪽’ 등으로 쓰인 표현이 번역본에서는 각각 ‘the teacher’, ‘the information’, ‘uncovering Sokdae’s misdeeds’으로 번역된 예가 있다. 이는 대명사를 보통명사로 변경함으로써 애매성을 해소하고 지시 대상을 좀 더 명

확하게 표현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

유형별로 살펴 본 위의 아홉 가지를 이론적 배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재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동·서양의 역사적·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차이이다. 한 사회 속에서 혹은 가족 관계 속에서의 개인이 가진 역할을 더 중시하는 한국 문화권에 반해, 영어는 다양한 가족관계 보통명사가 발달해있지 않고, 한 개인을 독립된 하나의 개체로서 인정하는 문화가 언어에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어의 보통명사가 영어의 다른 보통명사와 고유명사로 번역되는 경우에서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 둘째,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적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이다. 한국어는 동일어회가 주제성에 관계없이 반복해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지만, 영어는 주제성이 커질수록 대명사 사용을 선호한다. 그리고 영어는 대명사를 사용할 때 선행문맥과 엄격한 연관성을 가지지만, 한국어는 선행사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아도 작가의 의도에 따라 대명사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대명사의 쓰임 차이에 기반한 내용이므로 한국어의 지시표현이 영어의 대명사로 번역될 때와, 한국어의 대명사가 영어의 고유명사로 번역될 때에 발견할 수 있는 동기이다. 셋째, 번역 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르게 번역한 경우이다. 즉, 역사적·사회문화적 요인이나 언어적 특성과 큰 관계없이 각 문화권의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르게 번역한 경우로써, 고유명사가 다른 고유명사로 번역될 때와, 대명사가 보통명사로 번역될 때 발견할 수 있는 동기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영어 학습의 작문활동에서 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 학습자들이 영어 작문에서 지시표현을 사용할 때, 모국어 간섭 현상에 의해 어색한 문장이나 담화를 구성하게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어와 영어의 지시표현이 각각 어떤 경향성을 띠는지에 대한 본 논문의 결과와 설명을 영어작문수업에서 활용한다면, 모국어 간섭으로 인한 지시표현 사용의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학생들의 제2언어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곽성희. 2002. 영한번역에 나타난 결속구조 전환 양상. 「번역학 연구」 3(1), 125-144.
- 국립국어원. 2005. 「한국어 문법 1: 체계 편」.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은일. 2000. 유생성의 문법. 「현대문법연구」 20(1), 71-96.
- 김은일. 2002. 기능문법과 영어교육. 「현대문법연구」 27, 105-121.
- 김은일, 정연창. 2006. 주어 생략과 모호성 조건. 「언어과학연구」 37, 93-112.
- 김현정. 2002. 한국어 입말 담화의 결속성 연구: 생략현상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13, 241-265.
- 이은숙. 2008. 문화적 차이에 따른 한·영 언어 비교 연구. 「언어학연구」 13, 127-154.
- 이주은. 2003. 「지시표현의 선택과 주제성」.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연창, 김은일. 2009. 한영 병렬언어자료에 나타난 한국어 능동문의 영어 수동문으로의 번역. 「현대영어문학」 27(4), 255-274.
- 정연창, 김은일. 2011. 영한 번역에 나타난 지시표현의 변경에 관한 언어유형론 및 문화심리학적 연구. 「언어과학」 18(3), 67-86.
- 최현옥. 1997. 「영어교육과 실제」. 서울: 한국문화사.
- Brown, C. 1983. Topic Continuity in Written English Narrative. In Givón, T. (ed.), *Topic Continuity in Discourse: A Quantitative Cross-language Study*. Amsterdam: John Benjamins. 313-341.
- Edward T. Hall. 1989. *Beyond Culture*. New York: Anchor Books.
- Givón, T. 1983. Topic Continuity in Discourse: An Introduction. In Givón, T. (ed.), *Topic Continuity in Discourse: A Quantitative Cross-language Study*. 1-41. Amsterdam: John Benjamins.
- Ikegami, Y. 1991. 'Do-Language' and 'Become-Language': Two Contrasting Types of Linguistic Representation. In Ikegami, Y. (ed.), *The Empire of Signs: Semiotic Essays on Japanese*

- Culture*. Amsterdam: John Benjamins. 285-326.
- Lee, H. K. 2010. Referring Expressions in English and Korean Political News. *Journal of Pragmatics* 42(9), 2506-2518.
- Nisbett, R. E. 2003. *The Geography of Thought: How Asians and Westerners Think Differently and Why*. New York: The Free Press.
- Valdes, J. M. 1986. *Culture Bou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분석자료

- 이문열. 1987.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중단편집4』. 서울: 도서출판등지. 281-349.
- 신경숙. 2008. 「엄마를 부탁해」. 서울: 창비.
- Kim, C. Y. 2010. *Please Look After Mom*. New York: Knopf Publishing Group.
- O'Rourke, K. 1995. *Our Twisted Hero*. Seoul: Minumsa Publishing Company.